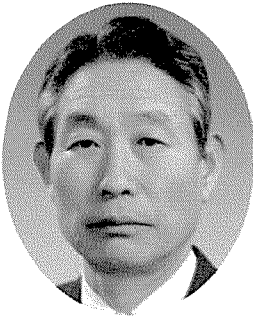


진흥회 동정

李壽珍 상근부회장 취임



▲ 상근부회장 李壽珍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李壽珍 전 대한전기협회 사무국장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이수진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62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同社 진해영업소 소장, 기획관리부 과장, 교육훈련부 차장, 연료부 차장 및 포항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후 한국가스공사 기획조정실장 및 고문직을 거쳐 '89년부터 대한전기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4월 7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동남아 전력회사 유력인사 초청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지역인 동남아 각국은 우리나라 중전기기 제품구매시 국내 시험검사 외에 제3국(유럽등)의 시험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 시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애로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동남아 전력회사 유력인사를 초청하여 국내 시험능력 및 검사설비가 제3국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국내 검사결과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 중전업체의 생산체계 및 제품출

하 과정을 견학시켜 우리 제품의 우수성 홍보로 동남아지역 수출촉진의 계기를 마련코자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전력회사 유력인사를 초청할 계획이다.

전기공업진흥회는 오는 5월 하순께 1차로 말레이시아 전력회사 관계자들을 초청할 계획인데, 구매부서 임원급 1명과 기술분야 및 시험관련 부서장급 2명 등 모두 3명을 초청하고 기술직 인사에 대해서는 초청기간 1주 외에 별도로 1주간 한국 전기연구소에서 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전력회사 관계자들은 1주일간 국내

에 체류하면서 한국·말레이시아·전기공업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중전기기업체와 통상산업부·한국전력공사 등을 방문해 국내 전기관련 정책 및 생산·시험설비를 견학하게 된다.

진흥회는 말레이시아 유력인사 초청사업에 이어 오는 8월에는 인도네시아, 11월경에는 태국의 유력인사를 초청, 동남아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얀마 및 캄보디아 전기공업 수출촉진단」 파견

최근 미얀마, 캄보디아는 민주화 개혁 및 경제적 개방정책을 통한 시장경제 체제 진입과 전후복구에 따른 각종 경제회복 정책으로 사회간접시설(S.O.C)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산업기반 시설인 전원개발 사업에 많은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 기자재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중전기기 신규 시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얀마 및 캄보디아에 전기공업 수출촉진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 한전, 업계 대표 20여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수출촉진단은 오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미얀마, 캄보디아 및 말레이시아를 방문,

인도차이나 지역 전력산업 현황과 메콩강유역 전원개발사업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전력청 방문 상담 및 간담회 개최, 중전기기 제조업체 공장견학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수출입 및 투자진출 방안등도 협의하게 된다.

또한, 파견기간 중에는 말레이시아 중전기기 전시회(ELENEX MALAYSIA '97)를 참관, 동남아 지역의 중전기기 기술동향 및 시장 정보수집 기회도 갖는다.

이번 방문중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전력청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문제도 협의하게 되며, 특히 '98년도에 개최되는 「서울국제종합 전기기기전」의 홍보와 함께 이들 국가의 참가와 참관도 유도할 계획이다.

최고기술 일류상품 무한경쟁 이겨내자